

# 제4과... 짹! 바지

● 전래동화



옛날,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

그 부자에게는 딸 셋이 있었습니다.

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

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뽐냈습니다.

첫째 딸이 말하였습니다.

“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.

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야.”

둘째 딸도 말하였습니다.

“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.

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돼.”

그러자 셋째 딸도 지지 않고 말하였습니다.

“흥, 언니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시집을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,

나는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.

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.”

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.

하지만,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딸들보다

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하였습니다.

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어째서 자기의 딸들보다

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하였습니다.

어느 무더운 여름날, 부자는 선비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.

그런데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.





‘아무리 덥더라도 점잖은 선비 체면에  
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니...’  
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 
그래서 선비에게 넌지시 물어 보았습니다.  
“아니, 어찌하여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?”  
선비는 껄껄 웃으면서 바지가 짧아진 사정에 대하여  
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 
며칠 전에 선비는 먼 친척에게서 선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.  
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 한 벌을 해 입기로 하였습니다.





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 보니  
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.  
선비는 세 딸이 모여 있는 방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말하였습니다.  
“얘들아,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 다오.”  
“네.”  
하고 세 딸은 일제히 대답하였습니다.  
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.  
선비는 외출을 하기 위하여 그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습니다.  
그런데 줄여 놓은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습니다.  
선비는 깜짝 놀라 세 딸을 불러 놓고 말하였습니다.



“아니,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뼀만 줄여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?  
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 놓아서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구나.”

첫째 딸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말하였습니다.

“그것 참, 이상하네요.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 
분명히 바지를 한 뼀만 줄여 놓았는데요.”

그러자 둘째 딸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.

“언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 
그 바지를 제가 한 뼀 줄여 놓았어요. 죄송해요, 아버지.”

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딸도  
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.  
“이걸 어찌면 좋아? 저는 언니들이 줄여 놓은 줄도 모르고  
오늘 아침에 저도 한 뼀을 줄여 놓았어요.”  
세 딸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.  
그러자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.  
“아니다, 애들아 너희가 줄여 놓은 이 바지야말로  
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.”

선비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 
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 
부자는 자기의 세 딸이 참으로 효성스러운지  
시험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.  
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딸들에게 말하였습니다.  
“애들아,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.  
내일 점심 때까지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이 바지를 한 뼀만 줄여 다오.”  
“네.”  
하고 부자의 세 딸이 대답하였습니다.  
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.  
부자는 세 딸을 불러 놓고 물었습니다.  
“아니, 애들아.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?









그런데 어째서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?”

첫째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였습니다.

“아니,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?”

저는 둘째가 줄여 놓은 줄 알았는데요.”

둘째 딸은 셋째 딸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.

“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?”

그러자 셋째 딸이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.

“아니, 아직 바느질도 서투른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?”

그런 건 언니들이 알아서 해야지요.”

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